

말씀과 권능이 가득한 교회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을 통해 하나님 축복의 비결을 깨닫게 하는 이재록 목사의 신간 소식과 하나님 권능을 체험한 성도 간증.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1)

구세주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춘 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토지무르기 법칙을 통해서도 깨우칠 수 있다.

‘생기’와 ‘생명의 씨’

몸의 조절이 영의 차원에서 이뤄지면 모든 기관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질병 균과 바이러스가 통하지 못하는 등 강건해진다.

주의 은혜가 기쁨의 샘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행하니 가정에 행복이 넘친다는 이성의 집사와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된 인도 수르비 만하스 자매 간증.

만민뉴스


제736호 2016년 5월 1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신구약을 관통하는 인간 경작의 파노라마!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
교보문고 종교 종합부문
베스트셀러
이재록 목사 성경인물 시리즈 ②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야곱, 인생의 파노라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사화복의 열쇠

값 15,000원 | 272쪽

마치 '인생 교과서' 같다. 세상 어디에서도 살 수 없는 보물을 손에 쥔 마음이었다! herme
한 번 읽고 던져둘 책이 아니다. 늘 옆에 두고 가까이하면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이다. jeis3
나의 목표를 '하나님과 나'의 관점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oyy1537

URIM BOOKS 홈페이지: www.urimbooks.com | 블로그: blog.naver.com/uribooks | 페이스북: facebook.com/uribooks17

이재록 목사의 성경인물 시리즈 2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가 4월 17일에 발간되어 절찬리에 판매 중이다.

시리즈 1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에 이어 독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책은 교보문고 인터넷 종교 주간 베스트 1위에 올라 있다.

하나님께서 왜 간교한 야곱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우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유다 지파를 통해 이 땅에 오셨을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정통계보를 이은 야곱과 그의 열두 아들들, 그들의 삶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택하시고 축복 주기 위해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책은 두 파트로 나뉘어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건으로 시작해 장자의 축복을 받아 아브라함의 정통계보를 잇는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 베

레스를 낳기까지의 파란만장한 삶을 서술하고 있다. 형 에서가 왜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을 수 없었는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왜 큰아들 르우벤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지, 요셉은 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는지 등 인생의 애환과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한 섭리가 담겨 있다.

또한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그림자라 할 수 있는 야곱의 열두 아들들을 통해 형성된 열두 지파의 이름에 담긴 영적 의미와 믿음의 분량의 상관관계, 야곱의 열두 아들과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차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와 부활하신 주님의 열두 사도의 차이 등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구약 시대로부터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인생들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기를 바란다.



“퇴행성관절염으로 변형된 오자 다리가 펴져 이제는 잘 걸을 수 있어요!”

윤위춘 성도 (72세, 3대대 32교구)

2015년 10월에 저는 위암 3기라는 판정을 받고 수술하였으나 의사는 이후에도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큰 아들 내외(주영, 김은정 집사)의 권유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55년 동안 천주교 신자였지만 치료의 역사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만민중앙교

회에서 온전히 치료받고자 남편(주하경 성도)과 함께 부산에서 상경해 큰아들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간증, 설교, 찬양 등 24시간 방송되는 GCN방송을 시청하며 많은 은혜를 받았지요. 특히,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남편과 함께 밤낮으로 들으며 환자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마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제 몸은 날로 호전되어 이제 식사도 잘하고 아무런 후유증도 없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저는 오래된 퇴행성관절염과 골다공증으로 인해 무릎관절이 심하게 휘어진 상태였기에 양 발바닥이 절반정도 밖에 땅에 닿지 않았습니다. 마치 펭귄처럼 뒤통거리며 천천히 걸어야 했지요.

검진 결과, 의사는 90% 이상 연골이 닳아 인공관절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12월 25일, 저는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후 여러 설교를 들으며 각종 예배와 만민기도원 집회에 참석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일들을 통회자복 하였습니다.

2016년 1월 16일, 제가 의자에 앉아 있는데 “어머니, 다리가 펴진 것 같아요!” 하며 며느리가 놀라워했습니다. 치마를 걷어 보니 오자 다리가 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일어서 보니 양 발바닥이 바닥에 닿고 편안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예배 시 환자 기도를 받을 때마다 걸음걸이가 좋아지더니 3월 20일, 당회장님께 직접 기도받은 후에는 빠르게 걸을 수 있었지요. 할렐루야!





당회장 이재록 목사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12)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 (1)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따라서 구세주의 첫 번째 자격 조건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의 근족이 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6~8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했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과 뼈를 가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셨으며, 사람이셨기에 주무시기도 하고 배고픔과 목마름, 기쁨과 슬픔도 느끼셨습니다.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피도 흘리시고 고통도 느끼셨지요.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세계의 역사가 크게 기원전(B.C.)과 기원후(A.D.)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의 기준 자체가 예수님의 탄생 시점인 것만 보아도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써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로서 아담의 근족이어야 한다는 구세주의 첫 번째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는 분입니다.

2. 예수님은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의 씨 곧 정자와 난자를 주시고 이를 통해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정자나 난자 안에는 부모의 기(氣)가 다 들어 있는데 부모의 성품

이나 성질, 본성, 외모, 심지어는 습관에 대한 내용까지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얼굴이나 체형은 물론 성품이나 습관에 닮는 것입니다.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조상들의 죄성이 자손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로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물려받아 죄인이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5장 12절에도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으니 아담의 후예는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자신이 죄인이라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저 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동생이 빚을 많이 지고 감옥에 갈 처지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나 형도 동생처럼 빚을 지고 감옥에 갈 처지라면 동생의 빚을 갚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죄를 대속하려면 구세주는 사람이어야 하되 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범죄한 아담의 후손은 모두 원죄를 가진 죄인이므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세주의 두 번째 자격 조건은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사람이면서도 죄인이 아니라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오직 한 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만이 사람이면서도 범죄한 아담의 후손 곧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육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요, 요셉과 마리아가 부모이지만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했고,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요셉의 정자나 마리아의 난자를 통해 잉태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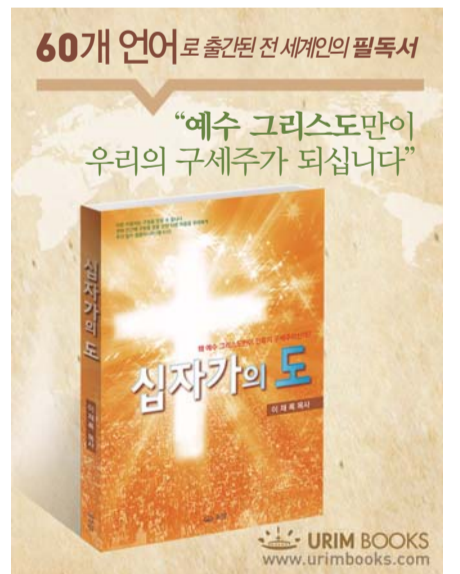
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에 잉태시키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단순히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었을 뿐 성령의 능력을 통해 잉태되셨기 때문에 원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과학이 발달하여 사람의 정자와 난자로 잉태된 수정체를 기계에서 열달간 양육했다고 해서 기계가 부모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에 대해 ‘어머니’라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요 2:4, 19:26). 때때로 ‘예수의 어머니’라 기록한 것이 나오는데, 이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결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기도하는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참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호에 구세주의 자격 조건에 대해 이어서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세주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춘 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신속히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첫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매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주셨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 이스라엘의 토지무르기 법칙(레 25:23~25)에 합당한 구세주의 자격을 통해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近族)이 와서 동족의 관 것을 무를 것이요” 말씀합니다. 토지를 판 사람의 근족이라야 토지를 되찾아 올 수 있는 것처럼 첫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원수 마귀에게 넘겨진 아담의 후손들을 되찾으려면 반드시 아담의 근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근족이란 천사나 짐승이 아니라 아담과 같이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22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반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령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인]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 월요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는행 :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생기'와 '생명의 씨'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고자 인간 경작을 계획하셨다. 농부가 밭에 씨를 심고 알곡을 거두듯이 하나님께서도 사람에게 생기와 생명의 씨를 심고 오랜 세월을 걸쳐 무수한 알곡 성도를 거두기 원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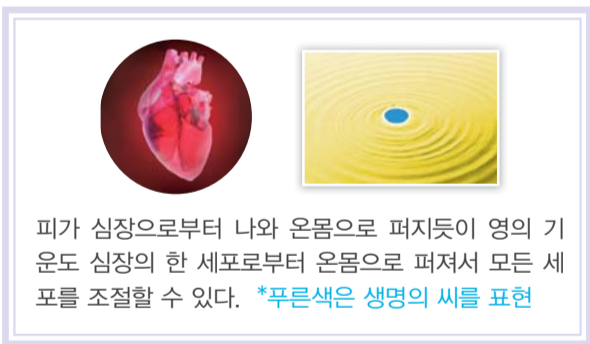
첫 사람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생기'
>>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근본 된 능력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의 역사를 베푸시기 전에 웅장한 소리를 머금은 영롱한 빛의 형태로 근본의 우주에 널리 퍼져 계셨다(요 1:1 ; 요일 1:5).

이러한 근본의 빛과 소리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생기'로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을 흠으로 빚으시고 생기(生氣)를 불어넣으시니 살아 움직이는 생령이 되었고(창 2:7), 마른 뼈들에게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가 들어가게 하시니 큰 군대가 되었다(겔 37:10). 7년 환난 중에 순교한 두 증인이 살아날 때도 생기가 들어가서 역사한다(계 11:11).

범죄한 아담에게 남은 '생기의 흔적'
>> 작은 씨앗과 같은 형태인 '생명의 씨'
 하나님께서는 생령 아담을 에덴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셨고,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에덴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생기는 에덴동산에서 낳은 아담의 후손들에게 자동적으로 전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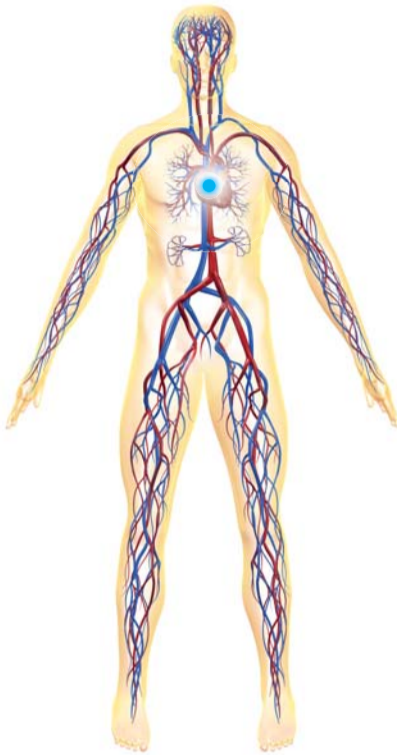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내어보내신 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서 생기를 대부분 거두시어 흔적만 남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씨'이다.

작은 씨앗과 같은 형태로 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세포 핵 안에 남아 있는 생명의 씨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낳은 후손들에게는 전달될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아가 6개월이 됐을 때에 영 안에 생명의 씨를 담아서 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세포핵 안에 심어 주신다.



범죄한 아담 후손에게 주시는 '생명의 씨'
>> 몸의 중심이 되는 심장의 한 세포에 심겨져
 생명의 씨는 바다에 떠 있는 부표에 비유할 수 있다. 부표는 선박에 항로를 지시하거나 바닷속에 있는 위험물의 존재를 경고하기 위해 설치된다. 이와 같이 사람 몸에서 위치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중심이 되는 부위인 심장의 한 세포에 생명의 씨가 심겨진다.

바다에서 부표의 위치가 고정된 것처럼 생명의 씨도 항상 몸의 중심부에 고정되어 있고 그 중심부에 있는 세포와 겹



쳐 있다. 몸의 세포는 계속해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해도 생명의 씨는 고정된 위치에서 새로운 세포를 통해 온몸의 다른 세포들을 조절하는 것이다.

'생명의 씨'가 깨어나 생명활동을 시작하면
>>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은 영의 사람, 온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의 후손에게 주시는 '생명의 씨'는 마음이 선할수록 싹을 틔우기에 좋은 환경이 된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 마음 안에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행 2:38). 성령이 임하시면 죽은 영이 살아나 마치 딱딱한 껍질에 싸인 씨앗처럼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죽은 듯이 가만히 있던 생명의 씨가 깨어나는 것이다(그림 1, 2).

싹을 틔운 씨앗이 물과 햇빛을 공급받아야 잘 자라듯이 생명의 씨도 깨어난 후에는 영적인 물과 빛을 공급받아야 자랄 수 있다. 곧 영적인 물인 하나님 말씀을 양식 삼고, 영적인 빛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영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것이다(요 3:6, 6:63).

하나님께서 영 안에 생명의 씨를 담아서 사람 몸의 중심이 되는 핵 속에 심어 주셨기에 생명의 씨가 깨어나서 생명 활동을 시작하면 생명의 씨를 감싸고 있는 영이 성장하게 된다(그림 3). 영이 몸의 중심에 있는 세포핵을 덮을 만큼의 크기가 되면 영의 마음이라 하며, 더 커져서 핵을 두르고 남을 정도의 크기가 되면 온 영의 마음이라 할 수 있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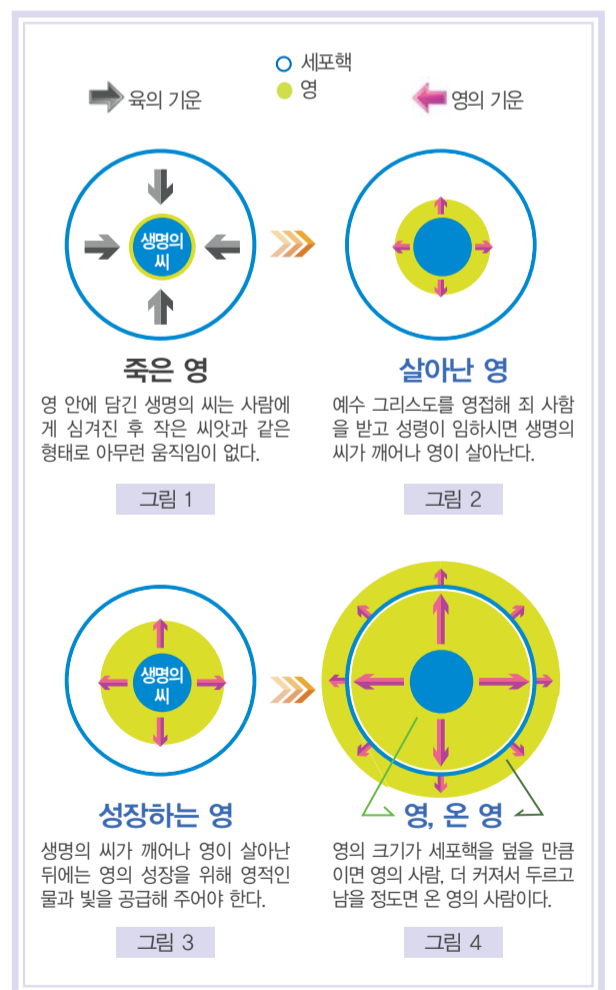
여기서 영과 세포핵을 그 크기로 비교한 것은 물리적인 크기보다는 몸을 조절하는 권한이 영에 있느냐, 육에 있느냐

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이다. 영의 크기가 세포핵을 덮을 만큼 커지면서부터는 몸이 육의 흐름을 타지 않는다. 그리고 더 커져서 온 영이 되면, 몸의 기능 조절이 온전히 영의 차원에서 이뤄진다.

영이 몸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면 혼도 영이 조절할 수 있다. 영이 혼을 지배하고 다스리기에 육신의 생각이나 비진리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 진리의 생각을 하게 된다. 요한삼서 2절에 기록된 대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는 것이다.

이처럼 몸의 기능 조절이 영의 차원에서 이뤄질 때 나타나는 현상은 몸의 모든 기관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되고, 질병 균과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또한 노화되지 않으며 회춘할 수 있다.

그런데 영으로 들어오기 전에도 영의 차원에서 몸이 조절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영의 차원에서 몸이 조절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영을 낳아 영의 사람, 온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살전 5:23).



<p>GCN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6. 5.1~ 5.7</p> <p>Thank You and Love You</p>	<p>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배 중의 보배는 믿음 ■ 십자가의 도 21-24 ■ 선 1 ■ 3차 영혼육 2-6 ■ 믿음의 분량 1 ■ 창세기 강해 21-25 ■ 위로부터 난 지혜 1-7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6-11 ■ 요한계시록 강해 98-105 	<p>GCN TV설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팔복 9 (이수진 목사) ■ 순종 (이미경 목사) ■ 막달라 마리아 1 (이미경 목사) ■ 영의 세계 4 (이희선 목사) ■ 믿음의 분량 4 (신동초 목사) ■ 열재앙 21 (정규영 목사) ■ 자기를 부인하자 (조수열 목사) 	<p>예능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기) 6 ■ 알콩달콩 어여쁜운동 56 ■ 내 마음의 찬양 31 ■ 창조와 과학 21 ■ English 9 ■ 모두 드려요 48 ■ 뷰티풀 라이프 10 ■ 즐거운 요리 19 ■ 흥겨운 소리 6 ■ 옛날 옛적에 3 ■ 플로리스트 13 	<p>해외성회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2 ■ 믿음으로 걸어온 길 40 ■ 회상 (시즌2) 6 <p>GCN HD 채널 kt olleh tv 882번</p>
---	---	--	--	--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일꾼으로 성장했으나 저는 친구들과 어울려 술, 담배, 영화 등 세상 오락을 취하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늘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때뿐이었지요.

1998년, 대학 선배의 전도로 만민중앙교회를 알고 난 후에는 죄를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공부 잘 하는 비결’ 설교를 들은 뒤에는 전 과목 A+로 전액장학금을 받아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2001년 10월, 저는 결혼과 동시에 대구에서 상경하여 만민중앙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가정으로서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막상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해보니 기도할 시간조차 쉽게 나지 않아 교회에서 하나님 일로 헌신하는 레위족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2004년 6월, 방송 매체를 활용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GCN방송(www.gcntv.org)에 입사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을 적당히 취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참



이성의 집사 (43세, 2세대 12교구)

마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지요.

2008년 겨울, 큰아들 재영이가 아토피성 피부염에 걸려 온몸이 가려워 잠을 자지 못하였습니다. 의사는 진물이 난 손으로 눈을 비벼서 실명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고, 영적으로 자녀의 질병은 부모로 인해 오는 경우가 많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 재미를 온전히 버리지 못한 것을 회개하였습니

다. 그 뒤 당회장님께 기도받자 재영이는 순식간에 깨끗이 나았습니다.

2013년 3월에는 제 허리디스크가 재발하여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존심, 교만, 불편함, 욕심의 생각 등을 발견할 수 있었지요. 저는 이러한 것들을 회개하고 당회장님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통증이 깨끗이 사라지고 치료되었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 마

음에 할례할 수 있는 간절함도 생겼습니다. 죄성이 버려질 때까지 한다는 각오로 비진리의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3일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노력해도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변개함 없이 해 나가자 조금씩 버려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사랑장(고전 13장) 설교를 묵상하며 붙들고 기도하니 하나님, 주님, 성령님의 사랑이 마음 깊이 느껴져 사랑이 없는 제 모습을 회개할 수 있었지요. 그동안 제 입장만 주장하고 직장생활 하는 아내에게 전업주부와 같은 행함을 바라며 때론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안일도 돕고 토요일만이라도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동갑내기로서 자존심도 세고 사고방식도 달라 의견 대립이 잦았지만, 이제는 서로 무엇이든지 말해 줄 수 있는 부부가 되었지요.

2015년 12월, 제가 하나님 은혜로 영의 마음을 이루는 축복을 받은 후에는 가정이 더욱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 재영이와 재윤이도 주 안에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처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환자를 돌볼 때 저를 치료하신 주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져요”

수르비 민하스 자매 (20세, 인도 델리만민교회)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혈액 양과 헤모글로빈, 갑상선 수치가 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약물 치료를 하며 식단 제한도 하였지만 호전되지 않았지요. 피를 많이 토하고 기절해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까지 생기자 저는 삶에 의욕을 잃고 자살 시도도 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고등학교를 마치고 국립 간호대에 입학했는데 그곳에서 친구 넷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교회에서 치료 역사가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2013년 12월부터 델리만민교회에 출석하였지요.

저는 화상을 통해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말씀대로

살며 기도하는 성도들은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환자 기도를 받은 뒤에는 통증이 경감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몇 주간 몸이 좋아지다가 싶었는데 예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심한 기침과 통증, 구토와 소화 불량 증세에 물조차 삼키지 못하고 토하니 체중이 줄고 일상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원인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병은 죄로 인해 온다’는 설교를 듣고는 오랫동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십자가의 도』 책을 읽으며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였지요. 또한 녹음된 당회장님의 ‘환자기

도’를 받고 무안단물(출 15:25)을 마시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자 2014년 2월, 음식을 먹어도 소화 잘되어 기운이 회복되었습니다. 열이나 통증, 구토 등 모든 이상 증세 또한 싹 사라졌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완전히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덧 간호대학 졸업반이 되어 환자들을 돌볼 때면 주님의 사랑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저서와 설교에 은혜를 받고 교회에 등록해 열심히 신앙생활 하며 충성하고 있는 의료계에 종사하는 델리만민교회 메디컬팀.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자녀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릉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북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북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4182-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치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2290-7779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를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주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양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청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충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역시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3330-317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탈로 95 ☎010-6355-1928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안사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시성전 경기도 이천시 증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딩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